

일 지역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

권수영^{1*}, 이동숙²

¹대리대학교 간호대학, ²강원대학교 간호대학

Effect of AIDS Knowledge, Self Esteem, Sense of Control and Optimistic Bias on Condom Use among Male College Students

Sue-Young Kwon¹, Dong-Suk Lee²

¹College of Nursing, Dali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B시 일 종합대학교의 남학생 323명을 편의표집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ANOVA, Pearson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은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있으며,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점수도 각각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 낙관적 편견, 자기통제감과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과 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에 대한 예측변수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이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관련 변수에 대한 반복 연구와 다양한 집단의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the AIDS knowledge, self esteem, sense of control and optimistic bias affect condom use among male college students. The survey was done among 323 male students within a university in B city and analyzed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ents had optimistic bias regarding AIDS, and the scores on the AIDS knowledge, self esteem, and sense of control were all rated high. Self esteem and sense of control, sense of control and optimistic bias, sense of control and condom use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condom use on with casual sex partners and with steady sex partner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lf esteem and sense of control were predictors of condom use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Additional studies among various groups should be follow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condom use.

Key Words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Knowledge, Self Esteem, Sense of Control, Optimistic Bias, Condom use,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말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 중 하

나왔던 에이즈(AIDS)는 현재 평생 관리해야 할 만성병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의 보건학적 도전이 되고 있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30여년이 지난 2015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Corresponding Author : Sue-Young Kwon (chnhjc@nate.com)

Received December 3,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January 3,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3,500만 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감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3,670만 명으로 추정된다[1]. 우리나라는 1985년 첫 감염 사례가 발견된 이후 2015년까지 누적 내국인 감염인 10,502명과 2015년 신규 감염인 1,152명 중 남자 1,080명 여자 72명으로 보고되었다[2]. 우리나라의 HIV 유행률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나,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실제 감염인 수가 등록된 수보다 약 3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3,4]. 초기의 감염 양상은 외항선원이나 성매매 여성과 같은 고위험군에 의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형태를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계층으로 확산되며 토착화되었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감염자의 배우자, 청소년층, 노년층에서 감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치료약의 개발 및 보급, 예방운동의 효과로 2015년 신규 감염이 2001년 보다 38% 감소하였고, 에이즈 관련 사망자도 가장 높았던 2005년에 비해 47% 감소한데 비해[5],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규 감염인 수가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낮은 연령대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6], 전체 신규 감염인의 약 75% 이상을 20~40대가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20대 감염인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2,7]. 한편 미국에서도 전체 HIV 감염인의 26%가 13~24세의 젊은이들이고 이 연령대에서만 매달 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데 HIV에 감염된 10~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8], 이러한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감염의 54~70%를 일으킨다[3]. 또 감염인의 HIV와 관련된 평생 의료비는 385,200~618,900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9].

HIV 감염의 전파경로는 성 접촉,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모자감염, 오염된 혈액 및 혈액체제의 수혈, 의료행위 중 감염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염경로가 밝혀진 감염자 중 98%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한 것이다[2]. 성 접촉을 통한 HIV 전파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위험 성행위의 억제, 성 매개 감염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콘돔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콘돔 사용의 경우 알려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남·여 모두 실질적인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0-13], 콘돔을 불규칙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번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HIV 감염 위험이 10~20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14].

대학생 연령층은 이성교제가 자유롭고 사회적으로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되어 성 활동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선행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첫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저조한 실정이다[12,15].

에이즈 지식은 에이즈와 관련된 여러 상황 안에서 HIV/AIDS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이 얻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뜻한다[16]. 이는 질병 예방대책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대부분의 국가 정책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16-18].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지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지식수준은 낮지 않으나 감염경로와 치료에 대한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12]. 한편 Fisher 등은 에이즈 지식과 예방 행동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19], 질병에 대한 지식이 예방 행동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위기 지각이다[20,21]. 위기 지각(Risk Perception)은 건강 행동 이론에서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질병으로 인한 위기를 지각하게 되어 적절하게 행동을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22-26]. 그러나 최근 에이즈 지식과 위기 지각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낙관적 편견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6].

낙관적 편견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신체적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믿는 경향을 말한다[27]. 이는 위기사건에 대한 지각이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예방적 행위나 의학 처방을 이행하지 않는 등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변수로 이해되어 왔다[28,29]. 낙관적 편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에이즈, 성병, 암, 임신, 흡연, 음주 및 약물 남용, 폭력 및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반면 국내의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30,31]. 에이즈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조사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대상자들의 낙관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12,32-36],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과 건강 행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는 없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의미한다[37]. 이는 사고, 정서, 행동, 계획에 영향을 미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38-40], 건강행위에도 영향을 주며[41] 낙관적 편견의 관련 변인으로 보고되었다[32,33,42].

자기통제감은 개인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42], 선행 연구자들은 위기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클수록 낙관적 편견이 커지고[27,32,33], 건강증진 행위의 관련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43]

최근 국내에서도 에이즈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에이즈와 관련한 정신적, 심리적 요인과 실제적 감염 예방 행동인 콘돔 사용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의 일 종합대학교의 1학년부터 4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 연구시행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에서 상관관계분석의 효과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134명이었다. 성관계未経験을 고려한 참여자 340명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17부를 제외하고 323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에이즈 지식

에이즈 지식의 측정은 유엔에이즈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문항을 참고하여, 국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13개 문항 설문을 사용하였다[13,32,44]. 정답에 1점을 부여하여 최소 0점부터 최대 13점으로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KR-20은 .6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KR-20에 대한 신뢰도는 .61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또래의 학생들에 비해 합리적인가, 책임감 있는가, 윤리적인가’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32,33,42].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은 개인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불건전한 성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2개 문항을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32,33,42].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값은 .6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2.3.4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낙관적 편견을 측정하는 도구는 Weinstein이 개발한 단일 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27]. 이 도구는 국내외 대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대적 판단지표이며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내가 에이즈를 경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로 문항을 구성하였다[28,29,32]. 본 문항은 7점 척도이며, 응답자들의 반응 평균치가 척도의 중간 점수(4점)를 나타내면 낙관적 편견은 없는 것이며,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면 낙관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점수가 클수록 낙관적 편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3.5 콘돔 사용

콘돔 사용의 측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콘돔 사용은 성 파트너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12]. 구체적 문항은 대상자의 성관계 유무, 지난 1년 동안의 성관계 유무,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유무, 그에 따른 콘돔 사용 빈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콘돔 사용 빈도는 매번(항상 사용, 4점), 자주(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이상 사용, 3점), 가끔(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이하 사용, 2점), 거의 사용하지 않음(1점)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B 광역시 일 종합대학의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전 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 당 한 반을 임의 선정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 학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요령과 주의사항 및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에는 표지를 만들어 본인 이외에는 설문 응답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표지에는 연구 목적과 설문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 본인이 원할 경우 설문에 참여하는 중간에라도 그만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직접 응답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함과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만 보관하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 전량 폐기할 계획

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기입 방식으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였고, 학년과 연령에 따른 그룹 간 제 변수들의 차이 확인은 ANOVA와 사후 검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파악은 Pearson's Correlation,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콘돔 사용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 정도와 집단 간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총 323명으로 평균 연령은 21.8(±2.2)세로, 1학년 104명(32.2%), 2학년 96명(29.7%), 3학년 80명(24.8%), 4학년 43명(13.3%)이었다. 대상자들의 에이즈 지식 정도는 13점 만점에 평균 9.87(±1.87)점, 자아존중감은 5.45(±1.23)점, 자기통제감은 5.55(±1.33)점, 낙관적 편견은 5.48(±1.47)점으로 각각의 평균값들이 중간 값인 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제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에서는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사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Duncan 방법에 의한 다중 비교 결과 대학교 2,3,4학년이 대학교 1학년 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에이즈 지식 점수가 21~22세 그룹이 20세 이하 그룹 보다 높았다<Table 1>.

에이즈 지식의 경우“에이즈 감염인과 주사기를 같이 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에이즈에 걸렸을 수 있다” 항목은 90.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에이즈는 모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다”(42.4%), “에이즈에 걸린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도 감염될 수 있다”(62.5%) 항목은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성관계 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항목은 66.3%의 정답률을 보였다<Table 2>.

대상자들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61.6%으로, 그 중 최근 1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비율은 78.4%였다. 배우

자나 애인 등이 아닌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대상자 비율은 30.8%였으며,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시 콘돔 사용 비율은 항상 사용 37.5%, 자주(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 이상) 사용 16.7%, 가끔(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이하) 사용 12.5%, 거의 사용하지 않음 33.3%로 나타났다.

한편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시 콘돔 사용 비율은 항상 37.8%, 자주 23.7%, 가끔 11.5%, 거의 사용하지 않음 21.8% 이었다.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5.4%가 피임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고, 13.1%는 성병이나 기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Table 3>.

3.2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간의 상관 관계

최근 1년 이내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 156명을 대상으로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r=.72, p<.001$), 자기통제감과 낙관적 편견($r=.25, p=.002$), 자기통제감과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시 콘돔 사용($r=.21, p=.011$),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

<Table 1> AIDS Knowledge, Self-Esteem, Sense of Control, Optimistic Bias, and Condom U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23)

Variables	n(%)	AIDS Knowledge		Self-Esteem		Sense of Control	
		M±SD	F (p)	M±SD	F (p)	M±SD	F (p)
Grade	1(a)	104(32.2%)	9.59±1.86	5.55±1.10	1.974 (.118)	5.60±1.27	0.919 (.432)
	2(b)	96(29.7%)	10.01±1.98	5.22±1.29			
	3(c)	80(24.8%)	10.00±1.73	5.47±1.36			
	4(d)	43(13.3%)	10.02±1.84	5.71±1.06			
Age	≤ 20(e)	106(32.8%)	9.52±1.79	5.56±1.11	0.386 (.763)	5.60±1.31	0.131 (.942)
	21~22(f)	74(22.9%)	10.27±1.83	5.38±1.17			
	23(g)	71(22.0%)	9.77±1.92	5.42±1.32			
	≥24(h)	72(22.3%)	10.04±1.85	5.40±1.38			
Total Score	323	9.87±1.87	5.45±1.23	5.55±1.33			

Variables	n(%)	Optimistic Bias		Condom Use 1		Condom Use 2	
		M±SD	F (p)	M±SD	F (p)	M±SD	F (p)
Grade	1(a)	104(32.2%)	5.48±1.49	1.58±1.16	4.046 (.013)	2.46±1.41	1.431 (.236)
	2(b)	96(29.7%)	5.55±1.35	2.75±1.18			
	3(c)	80(24.8%)	5.51±1.52	2.89±1.27			
	4(d)	43(13.3%)	5.34±1.59	3.18±1.17			
Age	≤ 20(e)	106(32.8%)	5.61±1.40	1.60±1.26	2.658 (.060)	2.68±1.35	0.959 (.414)
	21~22(f)	74(22.9%)	5.24±1.43	2.85±1.14			
	23(g)	71(22.0%)	5.42±1.59	2.82±1.33			
	≥24(h)	72(22.3%)	5.64±1.45	2.86±1.23			
Total Score	323	5.48±1.47	2.58±1.30	2.82±1.19			

Condom Use 1: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Condom Use 2: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Table 2> Correct Answer Rates of AIDS Knowledge Questions (N=323)

Questions	Correct Answer(%)
A person can get HIV by kissing with an HIV-positive person (False)	215(66.6%)
A person can get HIV by sharing a toilet with an HIV-positive person (False)	241(74.6%)
A person can get HIV by eating and drinking from the same plate or glass of an HIV-positive person (False)	231(71.5%)
A person can get HIV by sharing needle or syringe (True)	301(93.2%)
A person can get HIV from mosquito bites (False)	137(42.4%)
A person can reduce the risk of getting HIV by using a condom every time they have sex (True)	214(66.3%)
A healthy-looking person can have HIV (True)	317(98.1%)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HIV die within a several months (False)	271(83.9%)
An HIV-infected pregnant woman can pass HIV to her newborn baby (True)	275(85.1%)
A mother with HIV can pass it on to her baby by breast feeding (True)	202(62.5%)
An HIV-infected person, if there is proper treatments, can live for 20 years or more (True)	267(82.7%)
A person can get HIV by living in school with someone who is infected (False)	244(75.5%)
Only homosexuals need to worry about contracting AIDS (False)	269(83.3%)

관계 시 콘돔 사용 정도와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 정도의 관계($r=.78, p<.001$)는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3.3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 변수들이 연구대상자의 콘돔 사용 정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조사한 결과 공차한계는 .63~.99(콘돔 사용 1), .48~.99(콘돔 사용 2)와 분산팽창인자(VIF) 1.0~1.6(콘돔 사용 1), 1.0~2.1(콘돔 사용 2)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

<Table 3>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and Condom Use (N=323)

Contents	n(%)	
Ever had sexual intercourse	Yes	199(61.6%)
	No	111(34.4%)
	No answer	13(4.0%)
	Total	323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last 12 months	Yes	156(78.4%)
	No	43(21.6%)
	No answer	0
	Total	199
Had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within last 12 months	Yes	48(30.8%)
	No	104(66.7%)
	No answer	4(2.5%)
	Total	156
Used condom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within last 12 months	Always [*]	18(37.5%)
	Often [†]	8(16.7%)
	Occasionally [‡]	6(12.5%)
	Rarely [§]	16(33.3%)
	No answer	0
	Total	48
Used condom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Always [*]	59(37.8%)
	Often [†]	37(23.7%)
	Occasionally [‡]	18(11.5%)
	Rarely [§]	34(21.8%)
	No answer	8(5.1%)
	Total	156
Reasons for condom use	Contraception	150(75.4%)
	To prevent STD or other diseases	26(13.1%)
	No answer	20(10.0%)
	Other	3(1.5%)
	Total	199

^{*}Always: at all times [†] Often: more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sex
[‡] Occasionally: less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sex [§] Rarely: almost not use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mong the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within Last 12 months (N=156)

Variables	AIDS Knowledge r(p)	Self-Esteem r(p)	Sense of Control r(p)	Optimistic Bias r(p)	Condom Use1 r(p)
Self-Esteem	.003(.967)				
Sense of Control	-.029(.718)	.722*(<.001)			
Optimistic Bias	-.094(.245)	.113(.160)	.248* (.002)		
Condom Use 1	-.028(.851)	-.011(.939)	.231(.114)	.124(.401)	
Condom Use 2	-.097(.243)	.015(.860)	.208 (.011)	.149(.072)	.776*(<.001)

* :p<0.05, ** :p<0.01

Condom Use 1: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 Condom Use 2: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Table 5> Predicting Factors on Condom Use among 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Condom Use 1 (N=48)					Condom Use 2 (N=148)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865	1.549		1.203	.235	2.482	0.756		3.283	.001
AIDS Knowledge	-0.035	0.111	-0.046	-0.318	.752	-0.053	0.053	-0.080	-1.005	.317
Self-Esteem	-0.271	0.198	-0.249	-1.371	.177	-0.225	0.106	-0.240	-2.132	.035
Sense of Control	0.387	0.194	0.363	1.997	.052	0.318	0.103	0.356	3.088	.002
Optimistic Bias	0.092	0.131	0.104	0.701	.487	0.064	0.068	0.078	0.941	.348
	F=1.206 p =.322 R^2 =.101					F=3.536 p =.009 R^2 =.090				

Condom Use 1: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Condom Use 2: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첫째,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시 콘돔사용정도(종속변수 1)는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수준이 .05보다 크게 나타나서, 독립 변수들이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시 콘돔사용정도(종속변수 2)는 낙관적 편견과 에이즈 지식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이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3.54, p =.009), 약 9%의 설명력(R^2 =.090)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B시 일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323명으로 평균 연령은 21.8(\pm 2.2)세, 성관계 유경험율은 61.6%이었다. 이는 국내 선행 연구 보고서의 2002년 성 경험율 48.3%, 2004년의 49.6%, 2010년의 57.6% 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년도에 따라 성경험을 한 학생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5]. 그 중 최근 1년 이내에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156명의 30.8%가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의 20대 응답자 15.7% 보다 높은 비율이며[12], 이들 중 37.5%만이 성관계 시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내 여러 선행 연구 결과[10-13,46]와 같이 대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콘돔사용 증진을 위한 중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에이즈 지식 점수는 13점 만점에서 평균 9.87 \pm 1.87로 나타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5.92점이었다. 이 결과는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의 20대 지식수준 점수(75.46점)와 비슷하며[12], 2003년 Park의 48점에 비해서

는 증가하였다[47]. 그러나 문항 중 “성관계 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정답률 66.3%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의 89.7%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2010) 80.0%, 자메이카(2012) 86.6%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결과와 비교하여도 낮은 점수이다[12]. 또 “에이즈 감염인과 키스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문항은 66.6%, “에이즈는 모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다” 문항은 42.4%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대상자들은 에이즈 감염 경로와 예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최근 Kim의 대학생의 에이즈 예방 인식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지식과 정보의 부족을 보고하였는데[48],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의 부족은 기존 성교육 정규 교육과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내 고등학생 성교육 관련 교과 내용 연구에서 Won은 성교육의 내용이 인간관계와 인간발달에 편중되어 성병과 에이즈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교육 주제 항목 수준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입시 위주 교육의 영향으로 절반 이상의 성교육 관련 교과가 1학년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49]. 그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보건교과목이 교양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일부 학생들만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규교육을 통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우는 38.9%에 불과하였다[50].

본 연구에서 에이즈 지식은 콘돔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외 많은 선행 연구들도 질병 감염에 대한 개인적 우려와 질병의 예방에 대한 지식은 질병 예방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에이즈에 대하여도 위의 가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많은 연구에서 에이즈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은 안전한 성적 행동과 관련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3,33,51-57]. 연구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 개인이 에이즈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지식과

잘못된 신념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위기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게 되어 예방 행위까지 이르지 못하며[16], 또 일반 학교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전달은 에이즈 위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또 청소년들은 에이즈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질병의 민감성에는 개인차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에이즈 지식과 콘돔 사용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대상자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일반 지식은 있으나 이 지식이 실제 성행동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률(37.5%)과 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을 항상 사용한다(37.8%)고 한 응답률이 차이가 없고, 콘돔 사용 이유에 대한 응답자 다수(75.8%)가 피임이 목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들은 콘돔을 질병 예방보다는 피임의 수단으로 더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에이즈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자신과 무관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 행동과 예방법이 무엇인지 대상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여야 하며 콘돔 사용 증진과 같은 안전한 성행동 전략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는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사용 정도 점수가 대학교 2,3,4학년이 대학교 1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21~22세 집단이 20세 이하 집단 보다 에이즈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험을 한 남자대학생이 증가했다[45]는 선행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성경험이 많아질수록 성지식과 안전한 성행동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은 5.48(±1.47)점으로 중간값인 4점보다 높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외 다양한 집단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았다[12,13,33-36,42]. 또 낙관적 편견의 관련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 낙관적 편견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국내외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32,33,42].

Weinstein은 개인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커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주장은 지지되어[27], 대상자들은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불건전한 성생활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였다. 낙관적 편견과 건강행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구에서 진행되어 위기 지각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낙관적 편견이 건강행위의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되어 왔는데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함께 보고되고 있다[28,29,35,36,59-6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과 콘돔 사용에 대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의 의미도 대상자들의 콘돔 사용이 에이즈 예방 목적이 아닌 대부분 피임 목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여러 선행 연구 중 이들 변수와 성행동을 함께 분석하여 보고한 결과가 없어 향후 다양한 집단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또 건강 행위를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 즉 위험 성행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낙관적 편견을 조사하여 콘돔 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과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콘돔 사용 성향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Park 등의 연구에서도 콘돔 사용 상대자가 특정인에게 국한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집단인 경우에 콘돔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62].

콘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제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에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이 유의하게 기여하며, 본 연구의 4개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의 변이 중 약 9%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성 파트너 75.4%가 여자 친구이고, 이 경우 콘돔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데[57], 우리나라 여학생의 임신 중절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45] 현 상황에서 피임을 위한 콘돔 사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두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에이즈 혹은 성병 감염 예방에서 중요한 요소인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에 대하여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에이즈 감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과 목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후 콘돔 사용을 종속 변수로 한 반복 연구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 남자대학생 323명을 편의표집 하여 대상자 중 지난 일 년 동안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 156명에 대한 연구 결과이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에이즈 감염률이 빠른 증가를 보이는 현시점에서 제 변수들과 실제 예방 행위인 콘돔 사용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고함으로써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참고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뿐 아니라 에이즈 감염 위험 성행동과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적, 사회적인 여러 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다양한 지역과 집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HIV 감염의 예방적 건강 행위인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남자 대학생들은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있으며,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점수도 각각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에서는 대학교 2,3,4학년의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점수가 대학교 1학년 보다 높았고, 에이즈 지식 점수에서 21~22세 집단이 20세 이하 집단 보다 높았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 낙관적 편견, 자기통제감과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과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이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에는 제 변수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점수는 낮지 않으나 감염 경로와 위험 성행위, 예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콘돔 사용은 대부분 피임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전략에서 콘돔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콘돔 사용과 관련한 심리적, 성적,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향후 에이즈 감염의 예방적 건강 행위인 콘돔 사용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에 대하여 반복 연구와 다양한 집단의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lobal AIDS Update 2016", UNAIDS, 2016, <http://www.unaids.org/en/resources/documents/2016/Global-AIDS-update-2016>, May 20, 2016.
-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5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 Osong: CDC, 2016, http://cdc.go.kr/CDC/info/CdcKrInfo0128.jsp?menuIds=HOME001-MNU1130-MNU1156-MNU1426-MNU1448&fid=3444&q_type=&q_value=&cid=70430&pageNum= , August 30, 2016.
- [3] K.W. Choe, "Epidemiology of HIV/AIDS: Current status, trend and prospect",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50, No. 4, pp. 296-302, 2007, <https://doi.org/10.5124/jkma.2007.50.4.296>
- [4] S.Y. Shin, J.Y. Choi, Y.K. Kim, Y.S. Park, Y.A. Kim, M.S. Kim, Y.G. Song, Shuzo Matsushita, Taisheng Li, Hsi-Hsun Lin, Partric Li, J.M. Kim, "Epidemiology of HIV/AIDS in east Asia", Infection & Chemotherapy, Vol. 39, No. 1, pp. 24-37, 2007.
- [5]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AIDS fact sheet November 2016 Global HIV statistics", UNAIDS, 2016, <http://www.unaids.org/en/resources/fact-sheet>, December 20, 2016.
- [6] S.Y. Kim , B.S. Min, "Significant increase of young patients among new HIV infection in Korea", Donga.com, 2014, <http://news.donga.com/3/all/20141201/68268477/1>, December 1, 2014.
- [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Osong: CDC, 2015,

- http://cdc.go.kr/CDC/info/CdcKrInfo0128.jsp?menuId=HOME001-MNU1130-MNU1156-MNU1426-MNU148&fid=3444&q_type=&q_value=&cid=64357&pageNum=, August 30, 2016.
- [8]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Vital Signs : HIV among youth in the US", Atlanta CDC, 2012, <https://www.cdc.gov/vitalsigns/hivamongyouth>, March 12, 2013.
- [9] Schackman B.R., Gebo K.A., Walensky R.P., Losina E., Muccio T., Sax P.E., "The lifetime cost of current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care in the United States", *Medical Care*. Vol. 44, pp. 990-997, 2006.
- [10] S.H. Park , J.H. Han, "Condom use and prevent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The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and Population*, Vol. 22, pp. 102-111, 2009.
- [11] J.Y. Choi , J.M. Kim, "Updates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ID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55, No. 2, pp. 146-152, 2012.
- [1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ational survey 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2013", Osong: CDC, 2014, http://cdc.go.kr/CDC/info/CdcKrInfo0129.jsp?menuId=HOME001-MNU1130-MNU1156-MNU1426-MNU1560&fid=3445&q_type=&q_value=&cid=64115&pageNum= , August 30, 2015.
- [13] A.R. Sohn, J.S. Mo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Seou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0, pp. 105-122, 2009.
- [14] Pinkerton S.D., Abramson P.R., Kalichman S.C., Catz S.L., Johnson-Masotti A.P., "Secondary HIV transmission rates in a mixed-gender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STD & AIDS*, Vol. 11, pp. 38-44, 2000.
- [15] H.S. Kang, S.B. Chang,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condom attitud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 5, pp. 751-759, 2004.
- [16] Ndugwa Kabwama, S., Berg-Beckhoff, G., "The association between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perception of risk for infection: a systematic review", *Perspectives in Public Health*, Vol. 135, No. 6, pp. 299-308, 2015.
- [17] Herek G.M., Capitanio J.P., & Widaman K.F., "HIV-related stigma and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and trends, 1991-1999",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2, No. 3, pp. 371-377, 2002.
- [18] Cho HW, Chu C., "Can Stigma Still Distort the Spectrum of a Disease ?".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Vol. 3, No. 2, pp. 65-67, 2012.
- [19] Fisher J.D., Fisher W.A., "Theoretical approaches to individual-level change in HIV risk behavior. In Peterson & DiClemente (Eds.), *Handbook of HIV Prevention*, pp. 3-55,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2000.
- [20] Humpel J., "Different concepts of risk - A challenge for risk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Microbiology*, Vol. 3, No. 2, pp. 5-10, 296(S1):, 2006.
- [21] Jungermann H, Slovic P., " Risk is a Construct, Chapter: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isk perception, pp. 85-101, Publisher: Knesbeck, Editors: Bayerische Rück", 1993.
- [22] Catania JA., Kegeles SM., Coates TJ., "Towards an understanding of risk behavior: An AIDS Risk Reduction Model (ARRM)", *Health Education & Behavior*, Vol. 17, No. 1, pp. 53-72, 1990.
- [23] Bandura A., "Health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theory", *Psychology & Health*, Vol. 13, No. 4, pp. 623 - 649, 1998.
- [24] H.R. Lee, Y.J. Oh, "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the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in som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2, pp.235-244, 2015.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2.235>
- [25] S.H. Kang, "Testing of risk perception survey-Diabetes mellitu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e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2, pp. 477-486, 2016.
- [26] Y.M. Jang, J.S. Han, Y.S. Moon, "Convergence Study of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about Human Papilloma Virus(HPV) Vaccination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9, pp.313-321, 2015. <http://dx.doi.org/10.14400/JDC.2015.13.9.313>
- [27] Weinstein ND., "Why it won't happen to me: Perceptions of risk factors and susceptibility", *Health Psychology*, Vol. 3, pp. 431-457, 1984.
- [28] Clarke V.A., Lovegrove H., Williams A., Machperson M., "Unrealistic optimism and the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23, pp. 367-376, 2000.
- [29] Weinstein N.D., Marcus S.E., Moser R.P., "Smokers' unrealistic optimism about their risk", *Tobacco Control*, Vol. 14, pp. 55-59, 2005.
- [30] BC Kim, M James, MI Choi, YH Choi, "Cultural

- Difference Study on Optimistic Bias of AID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Kenya",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18, No. 1, pp.111-130, 2007.
- [31] SH Lee, EM Ha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timistic Bias about Cancer and Cancer Preventive Behavior of the Korean, Chinese, American, and Japanese Adult Residing in Korea", *J Korean Acad Nurs*, Vol. 40, No. 1, pp. 52-59, 2010.
- [32] A.R. Sohn, Floreil T., C.S. Moon, S.D. Ko, "Optimistic bias on HIV/AID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25, pp. 57-78, 2009.
- [33] B.C. Kim, Y.H. Choi, M.I. Choi, "AIDS prevention campaign and optimistic bias: self-esteem and a sense of control as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17, No. 2, pp. 43-58, 2006.
- [34] D.P. Cha, "Self-serving bias for HIV/AIDS infe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ublic Relation Research*, Vol. 8, No. 1, pp. 137-160, 2004.
- [35] Chapin J., "Third-person perception and optimistic bias among urban minority at risk youth", *Communi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51-81, 2000.
- [36] Harris P., "Sufficient grounds for optimis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optimistic bias", *Journal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5, No. 1, pp. 9-52, 1996.
- [37]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8] Curry N.E., Johnson C.N., "Beyond self-esteem: Developing a genuine sense of human value", <http://ovidsp.ovid.com/ovidweb.cgi?T=JS&PAGE=reference&D=psyc3&NEWS=N&AN=2001-16057-000>, 1990.
- [39] Leary M.R., Baumeister R.F., "The nur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pp.1-62, 2000.
- [40] Leary M. R., McDonald G.,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pp. 401-418,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2003.
- [41] G.S. Seo, "Health Behavior in the Aged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4, pp.1201-1212, 2008.
- [42] Sohn A, Chun S, Reid E.A., "Adolescent Optimistic Bias Toward HIV/AIDS in Seoul,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24, No. 5, pp. 816-825, 2012.
- [43] S.H. Song, Y.K. Jang, J.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Behavior, Social Comparison Attitude,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3, No.1, pp.27-39, 2009.
- [44] A.R. Sohn, "HIV/AIDS knowledge,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HIV/AIDS in the context of the exposure to public HIV/AIDS prevention campaign",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34, No. 12, pp. 211-235, 2013.
- [45] H.K. Lee, "Predictors of condom use intent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in 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6, No. 2, pp. 194-203, 2010.
- [46] J.H. Lee, J.H. "Convergence Study on Health Risk Behavior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Seoul vs. Non-Seoul A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5, pp.345-356, 2015. <http://dx.doi.org/10.14400/JDC.2015.13.5.345>
- [47] S.H. Park, D.O. Im, J.H. Han,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s toward condom use in 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and Population*, Vol. 16, pp. 57-62, 2003.
- [48] HS Kim, "A study on the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AIDS",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 31, pp. 75-93, 2015.
- [49] MY Won, "Analysis on Contents of Sexuality Education in High Schools - the 2009 Revised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5.
- [50] JK Lee, "Effects of AIDS Education on Knowledge, Prejudice, Susceptibility, Severity and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2, pp. 258-269, 2010.
- [51] Fisher, J. D., & Fisher, W. A., "Changing AIDS-risk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1, No. 3, pp. 455-474, 1992.
- [52] Kirby D. , "School-Based Interventions to Prevent Unprotected Sex and HIV among Adolescents, pp. 83-101, In: Peterson J.L., DiClemente R.J. (eds) *Handbook of HIV Prevention. Aids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Springer, Boston, MA", 2000. https://doi.org/10.1007/978-1-4615-4137-0_4
- [53] Strunin, L., & Hingson, R.,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nd adolescents : knowledge,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s", *Pediatrics*, Vol. 79, No. 5, pp. 825-828, 1987.
- [54] Brunswick, A. F., & Banaszak-Holl, J., "HIV risk behavior and the Health Belief Model: An empirical test

- in an African American community samp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 1, pp. 44-65, 1996.
- [55] Exner, T. M., Seal, D. W., & Ehrhardt, A., (1997). “A Review of HIV Interventions for At-Risk Women”, AIDS and Behavior, Vol. 1, No. 2, pp. 93-124, 1997.
- [56] Helweg-Larsen, M., Collins, B. 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Role of Knowledge About AIDS in AIDS Preven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6, pp. 23-26, 1997.
- [57] S.H. Park, D.O. Im, “Factors influencing the self-confidence of using condoms in 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Vol. 28, pp. 66-71, 2002.
- [58] DiClemente R.J., Crittenden C.P., Rose E., Sales J.M., Wingood G.M., Crosby R.A., & Salazar L.F., “Psychological Predictors of HIV-Associated Sexual Behaviors and the Efficacy of Prevention Interventions in Adolescents at-Risk for HIV Infection: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 Psychosomatic Medicine, Vol. 70, pp. 598-605, 2008.
- [59] D.S.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unhealthy dietary habit, optimistic bias about gastric cancer occurrence and self-efficacy in Korean adult me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6, No. 2, pp. 117-126, 2003.
- [60] S.H. Park, S.H. Lee, E.M. Ham,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tic bias about health crisis and health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8, No. 3, pp. 403-409, 2008.
- [61] S.H. Park, S.E. Kim, K.H. Oh, H.S. Kim, J.H. Kim, G.S. Kim, “Relationship between adults’ optimistic bias about colorectal cancer and life styl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186-198, 2009.
- [62] SH Park, JH Han, “Factors Affecting on the Condom Use in 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And Population, Vol. 12, No.1, pp. 59-64, 1999.

권수영(Kwon, Sue Young)

[정회원]



- 2008년 7월 : 중국대리대학교 공공 위생대학원 (의학석사)
- 2014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1년 3월 ~ 2016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강의교수
- 2014년 3월 ~ 2016년 8월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2017년 4월 ~ 현재 : 중국 대리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기초건강과학, 건강 행동과 건강 증진
- E-Mail : chnhjc@nate.com

이동숙(Lee, Dong Suk)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05년 3월 ~ 2009년 2월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09년 3월 ~ 2014년 2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중양 예방 및 조기 발견, 건강증진 행위 관련 요인,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ds1119@kangwon.ac.kr